

투어 번호
LKR7DE9KTJ

콜롬보에서 누와라엘리야 (2일)

2일 · 1박 |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이 체험 소개

이 2일 투어는 콜롬보에서 출발하여 스리랑카의 산악 지역으로 향하며, 전용 운전 가이드와 함께 전 일정을 진행합니다. 경로는 캔디의 불치사원(Sacred Tooth Relic)과 운영 중인 차 농장을 거쳐 영국인들이 「작은 영국」이라고 부르는 산악 도시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갑니다. 둘째 날은 초원, 운무림, 그리고 세계의 끝 절벽이 있는 호튼 평원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, 콜롬보로의 귀로 운전이 포함됩니다.

여행객들은 산악 지역의 문화, 차 유산, 산악 풍경의 종합적인 소개를 받으며, 종교적 랜드마크, 차 농장, 국립공원 트레킹을 짧은 기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정차지가 선택됩니다.

투어는 전 일정이 전용이며, 1인당 1일 500ml 물병 2개가 포함됩니다. 호텔 숙박, 식사, 현지 입장료는 별도로 예약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. 여행객의 최소 나이는 12세입니다.

일별 여행 일정

Day 1 콜롬보 → 캔디 → 누와라엘리야

콜롬보를 출발해 캔디를 지나, 오늘 밤 머무를 누와라엘리야의 차밭 지대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.



불치사(佛齒寺)

캔디에 있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졌습니다. 내부 통로와 홀은 붉은색, 크림색,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으며,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

A.Savin · FAL

차 공장

실제로 운영 중인 차 공장과 플랜테이션을 방문해 실론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봅니다. 스리랑카에서 차가 처음 재배된 곳은 1824년 페라데니야의 왕립식물원이었으며, 이후 1852년부터 영국인 정착민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의 루레콘데라 농장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상업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.

Day 2 누와라엘리야 → 호튼 플레인스 → 콜롬보

둘째 날은 호튼 플레인스를 둘러본 뒤 콜롬보로 다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.



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

공원 내 고산 초원과 운무림을 지나면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월드 엔드 절벽과 베이커스 폭포에 이르게 됩니다. 이 평원에는 다양한 고유종 동물들이 서식하며, 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유적지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 트레킹을 마친 뒤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하고 콜롬보로 이동합니다.

Faslan at en.wikipedia · CC BY-SA 3.0

포함 사항

포함

-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, Fuel, Parking & Highway tolls.
- Service of English-Speaking Chauffeur Guide.
-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.

미포함

-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.
-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.
- Chauffeur Guide's Accommodation.
- Expenses of personal nature.
- Visa and Related Expenses.
- Tips & Portages.

Lakpura® · 요금, 옵션 및 예약: www.lakpura.com/ko/products/nuwara-eliya-from-colombo-2-days
hello@lakpura.com · +94 11 574 7474